

기술분석보고서 IT

앤디포스(23809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앤디포스(238090)

복합기능 점착기술 기반 고기능성 테이프 및 기능성 필름 사업을 전개하는 소재 기업

기업정보(2026.09.10 기준)

대표자	권오빈
설립일자	2010년 6월 23일
상장일자	2016년 10월 12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모바일기기용
주요제품	양면테이프, 윈도우필름 등

시세정보(2026.09.10 기준)

현재가(원)	1,81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553
발행주식수	30,490,440주
52주 최고가(원)	4,150
52주 최저가(원)	1,537
외국인지분율	1.06%
주요주주	(주)대유 외 2인

■ 산업용 테이프를 주력으로 자동차·배터리까지 수요처 다변화 추진 중

앤디포스(이하, '동사')는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산업용 테이프와 건축용·차량용 필름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용 테이프는 방수·방진·내충격·차광·방열 등의 기능을 기반으로 모바일기기에 있어 자동차, EV 배터리 및 ESS 분야로 적용처를 확대하고 있고, 필름은 열 차단·자외선 차단·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동사는 점착제·정밀 코팅 기술과 글로벌 모바일 제조사의 신제품 개발단계에 참여해 온 기술 대응 및 양산 품질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 전자기기 고도화로 방수·방열·충격흡수·재작업성 등 복합기능 수요가 확대되는 시장

목표시장은 IT기기의 디스플레이, 케이스, 배터리 및 내부 부품 고정에 사용되고, 방수·방진, 충격흡수, 차광, 방열, 절연 및 재작업성 등 복합기능이 요구되는 시장이다. 전자기기의 박형화·고집적화와 OLED·폴더블 제품 확대에 따라 점착소재의 역할이 기기 성능과 신뢰성을 보완하는 기능성 부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객별 맞춤형 설계, 신뢰성 검증, 정밀 코팅·가공 및 안정적인 양산능력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고, 글로벌 소재업체와 기술경쟁도 지속되고 있다. 향후 폴더블·프리미엄 기기의 확대, 열관리 및 수리·재활용 용이성 강화가 고기능 제품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기능성 점착소재 고도화와 자동차·배터리 분야 확장을 추진 중

동사는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산업용 테이프의 적용영역을 폴더블·프리미엄 전자기기와 자동차·배터리·ESS 분야로 확대하는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 폴더블용 고정·방수, 전기박리, 박막 방수, 난연·친환경 소재 등으로 기술 범위를 넓히고 있다. 주주환원은 최근 현금배당보다 자기주식 취득·보유 및 향후 소각 또는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활용 검토에 무게가 실려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488.5	-45.3	-28.4	-5.8	-138.0	-28.2	-10.5	-8.8	13.1	-582	5,287	N/A	0.9
2024	524.5	7.4	19.5	3.7	-310.6	-59.2	-28.9	-25.2	17.3	-1,318	3,962	N/A	0.7
2025	504.1	-3.9	48.1	9.5	52.5	10.4	5.6	4.9	13.8	222	4,190	8.4	0.4

기업경쟁력

글로벌 고객 공동개발 및 양산 대응체계	신제품 기획 단계부터 고객사와 사양을 협의하는 Early Guest Engineering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제조·품질·영업을 연계해 시제품 개발부터 양산 및 사후관리까지 대응
고객 맞춤형 제품개발 역량	범용 제품 판매보다 전자기기 모델별 구조와 요구 물성에 맞춰 점착제, 기재, 완충층 및 코팅조건을 조정하는 맞춤형 개발방식 구축
품질관리 및 생산 안정화 역량	글로벌 전자기기 공급망에서 축적한 양산 경험과 품질경영체계를 바탕으로 기능성 테이프에 요구되는 균일한 성능과 공급 안정성 확보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박막 방수·내충격 점착기술	얇은 두께에서도 점착력·방수성·충격흡수성을 확보하는 기술로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케이스 접합용 양면테이프와 TPE 기반 박막 방수테이프에 적용
폴더블·선택적 박리 점착기술	반복적인 굴곡과 내부 유동성에 대응하면서 필요 시 부품을 손상 없이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기술로 폴더블 방수·윙플레이트 고정 및 모바일 배터리 탈착용 테이프에 적용
열관리·광학 기능성 테이프 기술	전자기기 내부의 열과 빛을 제어하는 기술로 열방사·방열테이프와 X·Y·Z축 차광테이프 등에 적용되어 고집적 전자기기의 성능 안정화지원

시장경쟁력

글로벌 스마트폰 공급망 진입 경험	삼성전자·애플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제품 개발 및 공급망에 참여한 이력을 바탕으로 신규 모델의 품질승인과 양산 대응에 필요한 레퍼런스 확보
프리미엄·폴더블 시장 대응 제품군	스마트폰 시장의 양적 성장 둔화에도 폴더블·고사양 기기에서 요구되는 방수·방열·재작업 등 고부가 기능성 소재를 확대해 제품 믹스 고도화에 대응
지식재산·인증 기반의 사업 확장성	핵심 방수·점착기술의 국내외 특허와 ISO-IATF 16949 등 품질·환경·자동차 관련 인증을 바탕으로 전자기기 외 자동차·배터리 등 인접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방수·내충격·방열·차광·선택적 박리 등 전자기기 고기능화에 필요한 복합 기능을 점착테이프에 구현하여 고객사의 제품 성능과 조립·수리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자기기 제조사의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참여해 고객별 요구사양에 맞춘 소재·구조 설계와 양산 대응까지 수행해 온 경험은 일반 점착소재 업체가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역량이다.	점착제 조성, 박막·다층 구조 설계, 정밀 코팅, 신뢰성 검증 및 고객사 승인·양산 이력이 결합된 기술체계는 축적된 공정 노하우와 고객 관계를 재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개발 1·2팀과 선행연구파트 기반 연구개발·제조·품질·영업을 연계하고, 고객 공동 개발에서 시제품 검증·양산·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I. 기업 현황

산업용 테이프를 주력으로 모바일에서 자동차·배터리까지 수요처 다변화 추진 중

동사는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산업용 테이프와 건축용·차량용 필름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용 테이프는 방수·방진·내충격·차광·방열 등의 기능을 기반으로 모바일기기에서 자동차, EV 배터리 및 ESS 분야로 적용처를 확대하고 있고, 필름은 열차단·자외선 차단·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동사는 점착제·정밀 코팅 기술과 글로벌 모바일 제조사의 신제품 개발단계에 참여해 온 기술 대응 및 양산 품질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모바일 관련 수요와 주요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하여, 향후 자동차·배터리 등 신규 분야의 매출 확대와 고객 다변화가 성장성과 사업 안정성의 핵심 과제로 판단된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10년 설립되었고, 2016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능성 점착·필름 소재 전문기업이다. 사업 초기 모바일기기용 양면테이프와 윈도우 필름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주력사업의 범위를 ‘산업용 테이프 및 건축용·차량용 필름’으로 재정의하면서 스마트폰 중심의 점착소재 사업을 자동차·배터리·산업용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주력 제품은 방수·방진·내충격·차광·방열·재작업성 등의 기능을 부여한 산업용 점착테이프와 열차단·자외선 차단·보호 기능을 갖춘 건축용 및 차량용 필름이다. 최종 수요처는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납품은 주로 완제품 제조사의 부품 및 부자재 가공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능성 테이프의 적용범위는 모바일기기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필름은 해외 판매와 함께 자체 브랜드 ‘ZIVENT’를 활용한 국내시장 확대가 병행되고 있다.

생산은 충북 음성 소재 공장과 연구개발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26년 상반기 산업용 테이프 및 건축용·차량용 필름의 생산능력은 약 247만m, 가동률은 63.61%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5년 55.67%보다 상승한 수준으로, 현 설비 내 일정 수준의 추가 생산여력을 보유한 구조로 판단된다.

동사의 경쟁력은 장기간 축적한 점착제 및 정밀 코팅 기술, 글로벌 모바일 제조사의 제품 개발단계에 대응해 온 공동개발 경험, 양산 품질관리 역량에 기반한다. 특히 방수·내충격·재작업성 등을 복합 구현하는 모바일용 테이프에서 축적한 기술을 자동차·배터리·산업용 제품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 확장의 기반이다.

다만 현재까지 매출은 모바일 관련 제품의 영향이 큰 만큼 전방 스마트폰 업황과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일정에 대한 의존성이 존재한다. 향후에는 기존 모바일용 고기능성 테이프의 고도화를 유지하면서 EV(Electric Vehicle) 배터리, ESS(Energy Storage System), 자동차용 기능성 테이프 및 고기능 필름의 실제 양산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성장 방향으로 판단된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2010.06	법인 설립
2014.02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TSP Module Fix Tape 납품 개시
2015.04	APPLE 스마트폰용 TSP Module Fix Tape 납품 개시
2016.10	코스닥 시장 상장
2017.08	R&D센터 준공
2018.12	큐어바이오 주식 취득
2019.07	화웨이 플래그십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납품
2020.01	윈도우 필름 ZIVENT 론칭 국내시장 진출
2022.04	(주)앤디인베스트먼트 설립(지분율 100%)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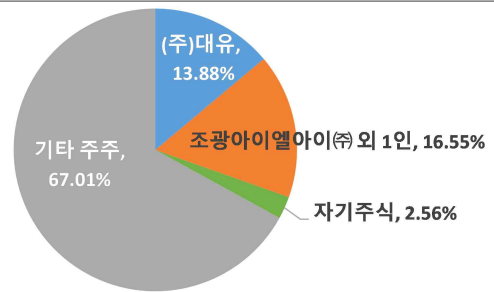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6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대유로, 전체 발행주식(30,490,440주) 중 4,230,849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13.88%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조광아이엘아이(주) 외 1인의 특수관계자가 5,046,943주(16.55%)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30.43%이다. 한편, 동사는 자기주식 780,757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0,431,891주(67.01%)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동사는 특정 단일 주주의 절대적 지배력이 높은 구조라기보다 주요 주주와 다수 일반주주가 병존하는 분산형 지분구조에 가깝다. 한편, 2026년 상반기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주주가 유입된 데 이어 3월 110억 원, 6월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향후 전환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지분 희석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지배구조의 핵심 변수는 신규 조달자금의 활용 성과와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주요 주주 간 지분 변동 및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주)대유	4,230,849	13.88%	최대주주
조광아이엘아이(주) 외 1인	5,046,943	16.55%	특수관계인
자기주식	780,757	2.56%	
기타 주주	20,431,891	67.01%	
합계	30,490,440	100.00%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산업용 테이프 및 건축용·차량용 필름을 중심으로 하는 소재 제조사업과 종속회사를 통한 부동산 개발·임대, 투자·경영자문 등의 보조사업으로 구성된다. 2026년 상반기 산업용 테이프 및 필름 부문은 약 226억 원의 매출과 약 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분양·임대 부문 매출은 약 5억 원, 이외 사업부 매출은 약 6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조사업이 매출과 영업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사업이고, 비제조 사업은 자산 운용 및 수익원 다변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사업에서 산업용 테이프는 핵심 제품군이다.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및 케이스 결합에 사용되는 양면테이프를 기반으로 방수·방진, 차광, 방열, 충격흡수 및 해체 용이성을 부가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제품개발 범위에는 전기반응 테이프, 스마트폰 보호테이프, ESS용 난연테이프, 차량용 외장테이프 및 차량용 배터리 고정용 테이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바일기기 중심이던 적용범위를 자동차 전장파와 이차전지 안전·조립 소재로 넓히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개발 또는 신규제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이 모두 유의미한 양산 매출로 연결된 것은 아니므로, 신규 분야의 성과는 고객사 인증과 실제 채택 여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필름 부문은 자동차 및 건축물 유리에 적용되는 열차단·자외선 차단용 윈도우 필름을 주력으로 하고, 자동차 전면유리 보호필름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고투명 솔라필름, 광반사 개선 차량용 윈도우 필름, 스크래치 복원 시트 및 자동차 유리 보호필름 등에 관한 국내외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시광선 투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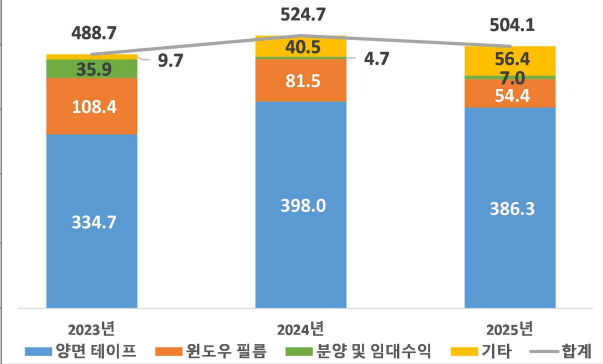
적외선·자외선 차단, 시인성 및 표면 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제품을 구성하고 있다. 테이프와 필름은 제품의 수요처가 일부 다르지만 고분자 소재 배합과 정밀 코팅, 기능성 표면 설계라는 제조기술 기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중속회사 가운데 와이에이치프라퍼티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분양·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앤디인베스트먼트는 기업투자과 투자유치·경영자문 등을 담당한다. 큐컴퍼니는 의료용품 및 의약품 관련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소재 제조업과 직접적인 영업 연계가 제한적이므로 제조사업의 기술적 시너지를 확대하는 포트폴리오라기보다 비제조 수익원 및 투자자산을 병행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동사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산업용 테이프와 기능성 필름을 본업으로 유지하면서 자동차·배터리 등 신규 적용처를 확대하고, 본업과 직접적인 영업연계가 제한적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양면 테이프	334.7	68.5%	398.0	75.9%	386.3	76.6%
윈도우 필름	108.4	22.2%	81.5	15.5%	54.4	10.8%
분양 및 임대수익	35.9	7.3%	4.7	0.9%	7.0	1.4%
기타	9.7	2.0%	40.5	7.7%	56.4	11.2%
매출 합계	488.7*	100.0%	524.7*	100.0%	504.1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사업보고서 내 매출실적표 기준 매출액(중단사업 포함)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영업조직은 산업용 테이프를 담당하는 영업본부 국내팀·해외팀과 건축용·차량용 필름을 담당하는 필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용 테이프는 국내외 전자기기 및 자동차 부품 관련 부자재 가공업체를 통해 공급하며, 최종 수요처인 글로벌 완제품 제조사의 부품 협력사를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한다. 건축용·차량용 필름은 해외 바이어를 통한 수출이 주요 판매경로이고, 국내에서는 자체 브랜드 ZIVENT를 활용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생산은 고객이 필요 제품과 수량을 주문하면 생산·납품하는 주문 대응형 구조에 가깝다.

산업용 테이프 영업은 고객 제품의 개발단계에 참여하는 기술영업 방식으로, 동사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신제품 기획·개발 단계부터 요구 사양을 협의하는 초기 공동개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제조·품질·영업부문을 연계해 신제품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확보, 최신 제품 우선 적용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용 보호필름과 EV 배터리 및 ESS 제조업체로 고객군을 확대하는 영업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고객사 인증, 개발 대응 속도, 양산 품질 및 납기 준수가 가격만큼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2026년 상반기 상위 3개 매출처의 매출비중 합계가 약 42.6%를 차지하여, 고객 집중도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종 수요처 역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에 상당 부분 연동되어 있어 특정 모델의 판매성이나 신제품 채택 여부로 매출이 변동될 수 있다. 이에 기존 모바일 고객과 공동개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동차·배터리·산업용 테이프와 국내외 필름 거래처를 실질적인 매출처로 확대하는 것이 판매구조 안정화의 핵심 과제로 판단된다.

II. 시장 동향

전자기기 고도화로 방수·방열·충격흡수·재작업성 등 복합기능 수요가 확대되는 시장

목표시장은 스마트폰·태블릿·웨어러블기기 등 디스플레이, 케이스, 배터리 및 내부 부품 고정에 사용되고, 방수·방진, 충격흡수, 차광, 방열, 절연 및 재작업성 등 복합기능이 요구되는 시장이다. 전자기기의 박형화·고집적화와 OLED·폴더블 제품 확대에 따라 점착소재의 역할이 기기 성능과 신뢰성을 보완하는 기능성 부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객별 맞춤설계, 신뢰성 검증, 정밀 코팅·가공 및 안정적인 양산능력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고, 글로벌 소재업체와 기술경쟁도 지속되고 있다. 향후 폴더블·프리미엄 기기의 확대, 열관리 및 수리·재활용 용이성 강화가 고기능 제품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기기용 고기능성 점착테이프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전자기기용 고기능성 점착테이프 시장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기기 등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케이스, 배터리 및 각종 내부 부품의 고정·접합에 사용되면서 방수·방진, 충격흡수, 차광, 방열, 절연 및 재작업성 등의 기능을 부가하는 점착소재 시장이다. 전자기기용 점착테이프는 제한된 내부 공간과 엄격한 신뢰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범용 제품과 구분된다. 전자·전기 분야를 포함한 점착테이프 수요는 포장·의료·자동차 등과 함께 전체 시장의 주요 응용처로 자리 잡고 있다.

전자기기용 고기능성 점착테이프는 완제품의 구조와 요구 성능에 따라 제품별 사양이 달라지는 맞춤형 소재의 성격이 강하다. 스마트폰의 박형화와 부품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제한된 면적에서 높은 점착력과 충격흡수 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방수 기능이 보편화되면서 수분 침투를 방지하는 밀봉 성능도 요구된다. 또한 OLED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기기에서는 반복적인 굴곡과 미세한 변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내부 열을 제어하기 위한 열전도·방열 특성 및 수리 과정에서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재작업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점착소재 기업은 폴더블 기기에서 디스플레이 고정, 배터리 장착, 광학 접합 및 열관리 기능을 세분화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점착소재는 기기 성능을 보완하는 기능성 부품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제품별 요구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점착제 배합과 기재 설계, 균일한 두께를 확보하는 정밀 코팅·가공기술이 필요하고, 온도·습도·충격 등 다양한 사용환경에서 장기간 물성을 유지하는 신뢰성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글로벌 전자기기 제조사는 신제품 출시 이전에 소재업체와 개발·검증을 진행하고 대량생산 단계에서도 일정한 품질과 공급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실제 공급망에 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글로벌 소재기업과 전문 점착소재 업체가 경쟁하고 있으며, 기술력뿐 아니라 고객의 품질승인 이력과 공동개발 대응능력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하여 국내 전체 점착테이프 시장은 2024년 14.6억 달러에서 2029년 17.3억 달러로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시장은 같은 기간 851.4억 달러에서 1,057.8억 달러로 연평균 4.4%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 목표시장은 건축·차량용 기능성 필름 시장으로, 건축물이나 차량의 유리 표면에 부착하여 적외선과 자외선을 차단하고 실내 열유입과 눈부심을 줄이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 안전성, 유리 및 내장재 보호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필름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높은 가시광선 투과율을 유지하면서 적외선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열차단 성능과 시인성, 표면 내구성 및 디자인이 주요 경쟁요소로 이동하고 있다. 건축용에서는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존 창호의 성능 개선 수요가, 차량용에서는 실내 열관리와 자외선 차단 및 탑승자 편의 향상 수요가 주요 수요 기반을 형성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목표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자기기의 고집적·고기능화에 따른 소재의 복합기능화이다. 기기의 크기와 두께가 감소하는 동시에 카메라, 프로세서,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점착소재에는 고정 기능 외에 충격흡수, 열관리, 차광, 절연 및 방수 기능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전기·전자용 접착테이프 시장에서도 기기 소형화와 고기능화에 대응해 나사·볼트 등의 기계적 체결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높은 온도와 전기·전자적 환경에서 안정적인 접착성능을 제공하는 소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반복적 접힘 과정에서 점착층에 지속적인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접착력과 함께 유연성과 복원력, 장기 내구성 등 높은 수준의 점착소재 기술이 요구된다. 내부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배터리 고정 소재에는 높은 고정력과 함께 탈착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발열밀도 상승에 따라 열전도·방열 기능도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소재업체는 열이나 기타 자극을 이용한 제거 가능 점착재와 고열전도 감압점착재 등을 폴더블 기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고기능성 접착테이프의 경쟁기준이 강하게 붙이는 성능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 시 안정적으로 분리되는 성능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전방 스마트폰 산업은 2026년 큰 폭의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 2026년 8월 기준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한 10억 대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평균판매가격은 27.6% 상승한 581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폴더블 스마트폰은 전체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12.6% 성장한 2,290만 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목표시장은 단기적으로 완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물량 부담이 존재하지만, 저가형 모델의 축소와 폴더블·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는 높은 사양의 기능성 테이프 수요를 지지하며 제품당 소재 부가가치 상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규제와 순환경제 확대도 점착소재의 기술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용제형 제품은 제조공정에서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가 발생할 수 있어 수성·무용제·저VOC 제품으로 전환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원유 및 석유화학 원료 가격의 변동성 역시 기존 소재체계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수성 또는 UV(Ultraviolet, 자외선) 경화형 점착제와 재활용 가능한 기재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제품 수리와 폐기 시 부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디본딩(Debonding)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다.

목표시장은 스마트폰의 박형화·폴더블화와 열관리·수리 용이성 강화로 고기능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와 글로벌 소재업체 간 기술경쟁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사는 폴더블용 방수테이프, 배터리 고정·해체성 테이프, 열방사 및 전기박리 테이프 등을 개발하며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향후 경쟁력은 신규 제품의 고객사 품질검증과 실제 모델 채택, 장기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인 양산 전환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국내 점착테이프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글로벌 점착테이프 시장

(단위 : 억 달러)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맞춤형 설계·양산 역량 기반으로 폴더블·방열·재작업 등 고기능성 점착소재 기술 확대 중

동사는 박막 방수·내충격 양면테이프, 폴더블 기기용 구조 설계, 선택적 박리·재작업 점착기술, 열관리 테이프 및 기능성 필름 코팅기술을 확보하고, 점착제 조성·기재·완충층·코팅조건을 요구사양에 맞춰 설계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고객의 신규 모델 개발부터 참여해 소재 설계, 시제품 검증 및 양산 적용까지 연계하며, 폴더블·방열·전기박리·UV 경화형 친환경 점착소재로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터치스크린용 양면테이프, 방수·배터리용 점착기술과 기능성 필름·표면보호 기술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고, 품질·환경·안전보건 및 자동차산업 품질관리 관련 인증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전자기기의 제한된 내부 공간에서 요구되는 접착력, 방수성, 충격흡수, 열관리 및 분리 용이성 등을 점착테이프에 복합적으로 구현하는 소재·구조 설계 역량에 기반한다. 점착제의 성질, 기재의 두께와 탄성, 내부층 구조 및 코팅 조건을 조정해 제품별 요구조건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박막 방수·내충격 양면테이프 기술은 동사의 기초적인 핵심기술로,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와 케이스 사이를 접합하면서 외부의 물이나 먼지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낙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점착층과 완충 구조를 설계한다. 필러층을 활용해 테이프 두께를 얇게 유지하며 접착력과 충격흡수 성능을 확보하는 구조를 개발해 왔고, TPE(Thermoplastic Elastomer, 열가소성 탄성체)를 이용한 박막 방수테이프도 양산 적용 수준까지 구현하였다. 기기의 슬림화와 더불어 두께를 줄이면서 복수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기술적 핵심이다.

폴더블·고집적 전자기기용 구조 설계 기술은 고정된 부품을 붙이는 기존 테이프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기술이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접힘과 펼침이 반복되면서 내부 부품 사이에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단하게 고정하면 부품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고정력이 부족하면 위치가 틀어질 수 있다. 동사는 이러한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방수 성능을 유지하는 테이프와 폴더블 기기의 윙플레이트를 고정하는 제품을 양산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 제품별 요구조건에 따라 Cushion Layer(완충층)의 구조와 물성을 달리하는 설계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X·Y·Z 방향으로 빛이 새는 것을 억제하는 차광테이프 기술을 결합해 디스플레이 주변의 광학적 요구에도 대응하고 있다.

선택적 박리·재작업 점착기술은 전자기기 수리와 부품 재사용 요구에 대응하는 기술이다. 일반 테이프는 강하게 붙을수록 부품을 떼어낼 때 손상 위험이 높아지지만, 선택적 박리기술은 평상시에는 충분한 접착력을 유지하다가 특정 조건에서 접착력을 낮춰 부품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동사는 배터리 해체 시 용제를 이용해 탈착을 쉽게 하는 기술을 모바일 배터리 고정용 제품에 양산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온도에서 접착력을 낮추는 열반응형 테이프와 전압·전류를 가하면 접착력이 감소하는 전기박리 점착테이프도 개발하였다. 이는 전자기기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부품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고정 중심 점착기술과 차별화된다.

열관리 기능성 테이프 기술은 전자기기의 고성능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다. 프로세서와 배터리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기기 내부에 발생하는 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착소재에도 고정 기능뿐 아니라 열을 외부로 전달하거나 분산시키는 기능이 요구된다. 동사는 발생한 열을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부분으로 빠르게 전달하는 열방사 테이프를 양산하고 있으며, 가전·IT기기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열테이프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방열부품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 제한된 공간에서 부품 고정과 열관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소재로서 의미가 있다.

■ 연구개발 역량

동사는 2012년 기업부설연구소 인가를 받은 이후 2017년 R&D센터를 준공하였고, 2026년 상반기 기준 연구조직은 개발 1팀, 개발 2팀 및 선행연구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에는 개발 1·2팀 중심의 조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선행연구 기능이 별도로 포함되어 기존 제품 대응과 중장기 기술개발을 병행하는 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개발 방식은 고객사의 신규 모델 개발부터 양산과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모델별 프로젝트 수행이 특징이다. 글로벌 전자기기 업체의 신제품은 모델별 구조와 부품 배치, 요구 물성이 다르므로 동사는 신규 모델의 기획·개발 단계부터 고객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Early Guest Engineering(초기 공동개발) 방식을 운영하고, 연구개발·제조·품질·영업 조직을 연계해 시제품 설계에서 양산 적용까지 대응하고 있다. 이는 기술개발 결과가 고객 모델에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고객의 개발 일정과 인증 결과에 따라 연구 성과의 사업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도 가진다.

연구과제의 성숙도도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폴더블 방수테이프, 모바일 배터리 고정용 테이프, 윈도우 테이프, 열방사 테이프 등은 이미 양산 적용 단계에 도달한 반면, 전기박리 테이프와 UV 경화형 방수테이프 등은 실물 제작·평가 또는 양산 가능 수준에 있다. 이는 연구개발 포트폴리오가 현재 매출을 지원하는 양산형 과제와 차세대 소재를 준비하는 선행과제가 병존함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 용제형 점착제를 UV 경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생산성뿐 아니라 친환경 소재 요구에 대응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의 특허권은 주력사업과 직접 연계된 전자기기용 방수·고접착·내충격 점착기술과 기능성 필름·표면 보호 기술을 중심으로 보호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전자기기 분야에서는 터치스크린 패널용 양면테이프, 밀착성과 방수성능을 높인 방수테이프, 배터리용 방수테이프 등의 구조와 제조방법을 권리화하여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요구되는 접착·방수·충격보호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기술은 미국과 중국에도 대응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기능성 필름 분야에서는 고투명 솔라필름의 산화 방지, 차량용 윈도우 필름의 광반사 저감, 스크래치 복원 복합시트, 자동차 유리 보호용 필름 및 코팅 조성물·제조방법 등을 중심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점착기능보다 실제 양산제품에 적용되는 방수·내충격·광학·표면보호 성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전자기기용 점착소재에서 기능성 필름 영역으로 기술 보호범위를 확장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상표권은 기술특허와 달리 해외 판매 및 브랜드 사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는 국내에서 ‘앤디포스’, ‘NDFOS’, 로고 및 ‘ZIVENT’를 제17류 중심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NDFOS 관련 권리는 미국·유럽·일본·중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로 확대되어 있다. ZIVENT 역시 중국과 미국에서 권리를 확보하여 차량용 기능성 필름의 브랜드 사업을 보호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인증 및 사업화 기반 측면에서는 품질·환경·안전 및 기술혁신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폭넓게 구축하고 있다. 동사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과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해 필름 및 산업용 테이프의 제조·무역에 관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전자제품용 특수점착 테이프와 자동차·건축·가정용 필름, 산업용 테이프의 설계·개발·생산 및 서비스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 품질경영시스템인 IATF 16949를 확보해 전자기기 중심의 사업에서 자동차용 기능성 소재로 적용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품질 기반을 갖추고 있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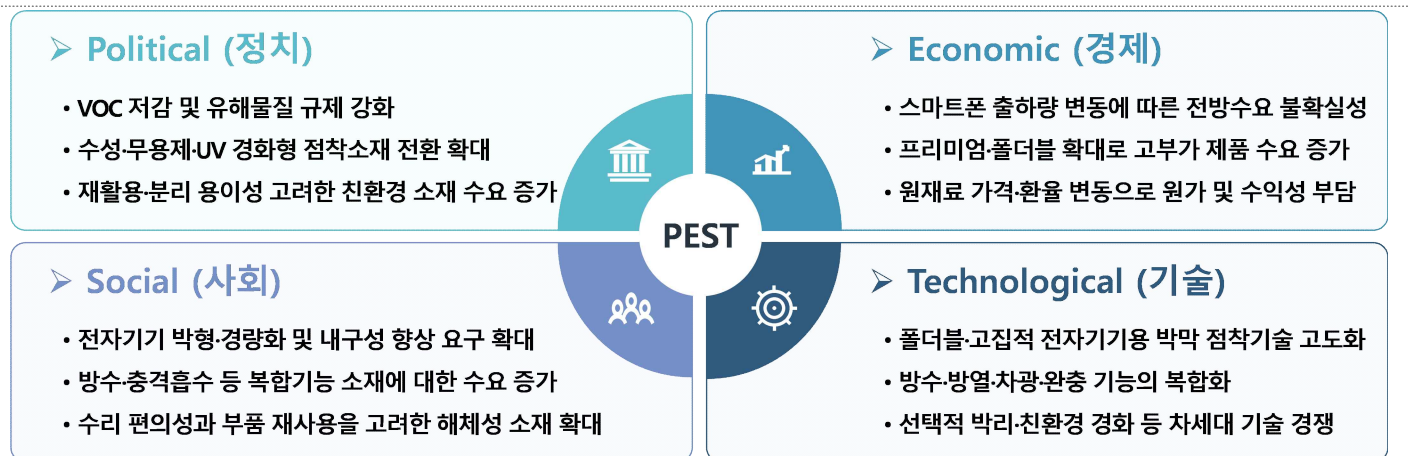
전자기기 및 점착소재 산업에서는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저감, 유해물질 관리, 자원순환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용제형 점착제를 수성·무용제·UV 경화형 소재로 전환하고, 제품 폐기·수리 시 부품 분리가 용이한 소재를 적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성과 재활용성을 제품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소재업체의 주요 대응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사가 추진하는 UV 경화형 방수테이프와 선택적 박리 기술의 사업적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주요 전방시장인 스마트폰 산업은 경기와 신제품 출시주기, 부품 수급에 따른 출하량 변동이 큰 반면 프리미엄·폴더블 제품의 확대는 고사양 기능성 테이프의 제품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아크릴·필름 등 주요 원재료 가격과 환율 변동은 원가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출과 글로벌 전자기기 공급망의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상 전방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화가 가동률과 매출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요구는 단순 성능 향상에서 박형·경량화, 방수·내구성, 휴대성, 수리 편의성 및 친환경성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점착테이프에도 여러 기능을 동시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폴더블 스마트폰과 고가 전자기기의 확산은 반복 굴곡에 대한 내구성, 충격흡수, 배터리의 안정적 고정과 손상 없는 분리 등 사용성과 유지보수를 함께 고려한 소재 수요를 확대하고 있어 고기능성 점착소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기기의 고집적화와 폴더블 구조 확대, 프로세서·배터리 성능 향상에 따른 발열 증가는 얇은 두께에서 방수·충격흡수·차광·방열·재작업성을 복합적으로 구현하는 소재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착제 조성뿐 아니라 완충층과 다층구조 설계, 열관리, 용제·전기·열을 이용한 선택적 박리 및 친환경 경화기술이 주요 경쟁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객사의 신규 모델 개발단계부터 사양을 공동 설계하고 양산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대응 역량이 시장 진입과 거래 지속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검증 단계에 있어 향후 경쟁력은 고객 디자인인과 양산 전환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주력사업 수익성 회복과 재무기반 재정비 진행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488.5억 원, 2024년 524.5억 원, 2025년 504.1억 원으로 500억 원 안팎의 외형을 유지하였으며, 모바일기기용 양면 테이프를 중심으로 주력사업의 매출 기반이 이어졌다. 수익성은 매출원가와 판관비 부담 완화에 힘입어 2025년 영업이익 48.1억 원, 영업이익률 9.5%를 기록하였고, 당기 순이익도 52.5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개선세를 나타냈다. 재무구조는 2025년 기준 부채비율 13.8%, 유동비율 440.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6년 상반기 전환사채 발행과 투자자산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 및 투자부문 손익 변동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 주력 테이프 사업이 견인하는 안정적 매출 기반

동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3년 488.5억 원에서 2024년 524.5억 원으로 7.4% 증가한 후 2025년 504.1억 원으로 3.9% 감소하였다.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면서 외형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2025년 외형 감소에도 매출총이익은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점에서 최근 실적 변화는 외형 성장보다 제품 및 비용구조 개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별 매출액(매출실적표 기준, 중단사업포함)을 살펴보면, 모바일기기용 양면 테이프가 실적의 중심을 유지하였다. [양면 테이프] 매출은 2023년 334.7억 원에서 2024년 398.0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25년 386.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8.5%에서 75.9%, 76.6%로 지속 상승하였다. 반면 [윈도우 필름] 매출은 2023년 108.4억 원에서 2024년 81.5억 원, 2025년 54.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분양 및 임대수익]도 2023년 35.9억 원에서 2025년 7.0억 원으로 축소된 반면 [기타] 매출은 9.7억 원에서 56.4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비주력 부문의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23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256.7억 원 대비 7.8% 감소하였다. 다만, 생산 가동률이 2025년 55.7%에서 2026년 상반기 63.6%로 상승하였다. 2026년 상반기 생산 가동률 상승과 주력 산업용 테이프의 계절적 수요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하반기 핵심 제조 부문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원가 효율화가 이끈 영업수익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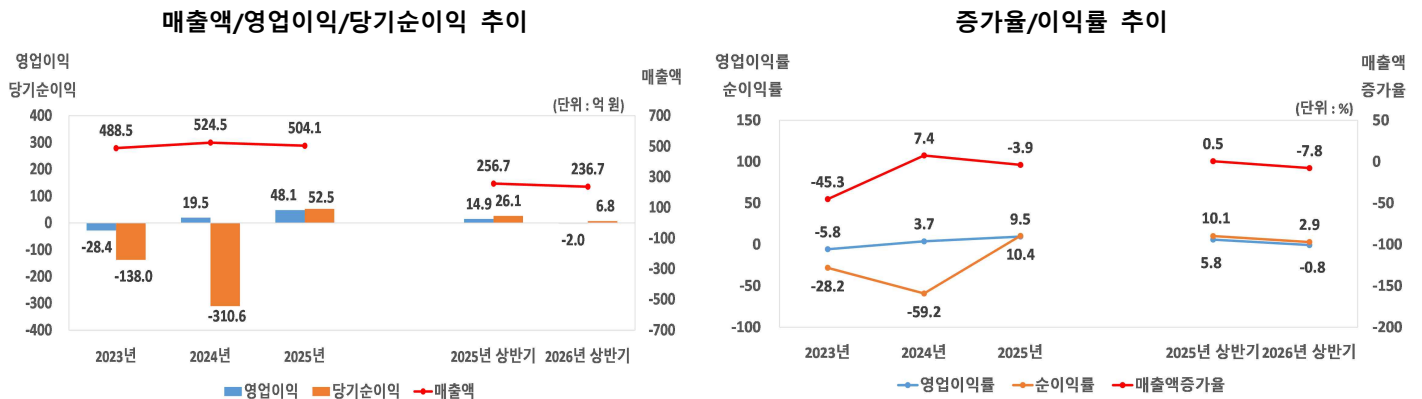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8.4억 원, 2024년 19.5억 원에서 2025년 48.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영업이익률도 각각 -5.8%, 3.7%, 9.5%로 상승하였다. 2025년에는 매출이 3.9% 감소했음에도 비용 효율화 효과가 나타나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매출원가는 같은 기간 402.0억 원에서 354.6억 원, 322.3억 원으로 감소해 매출원가율이 82.3%에서 67.6%, 63.9%로 하락하였다. 2025년 양면 테이프 약품류 단가는 kg당 4,714원으로 2023년 4,936원보다 낮아졌으며, 윈도우 필름 약품류 역시 2023년 14,909원에서 2025년 7,518원으로 하락하였다. 다만 양면 테이프 원단류 단가는 2025년 95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해 일부 원재료에서는 비용 부담이 이어졌다. 판관비율은 3년간 23.5%, 28.7%, 26.5%를 기록하며 2025년 외형 감소에도 판관비율은 줄어들었다.

3년간 당기순이익은 2023년 -138.0억 원, 2024년 -310.6억 원에서 2025년 52.5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으며,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28.2%, -59.2%, 10.4%로 개선되었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졌던 높은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며 순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상반기 실적은 영업손실 2.0억 원, 당기순이익 6.8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실적이 적자로 전환된 것은 집합투자 등을 포함한 이외 사업부의 영업손실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2025년부터 확인된 제조사업의 원가구조 개선과 2026년 상반기의 가동률 상승이 지속될 경우 본업을 중심으로 한 수익창출 기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현금 자본확충으로 유동성 완충력 확보와 재무구조 변화

동사의 자산총계는 2023년 1,411.2억 원에서 2024년 1,058.8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5년 1,086.3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25년 말 유동자산은 539.3억 원이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77.0억 원에서 2024년 139.3억 원, 2025년 16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채고자산은 2023년 229.3억 원에서 2024년 195.0억 원, 2025년 148.4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채고자산에 투입되는 운전자금 부담도 완화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유동비율은 2023년 826.0%, 2024년 393.4%, 2025년 440.2%로 나타났다.

부채총계는 2023년 163.1억 원에서 2024년 156.3억 원, 2025년 131.7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2023년 13.1%, 2024년 17.3%, 2025년 13.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5년 말 유동부채는 122.5억 원으로 유동자산 539.3억 원을 크게 하회하였다. 단기차입금 49.8억 원이 존재하지만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2025년 말 기준 단기 지급능력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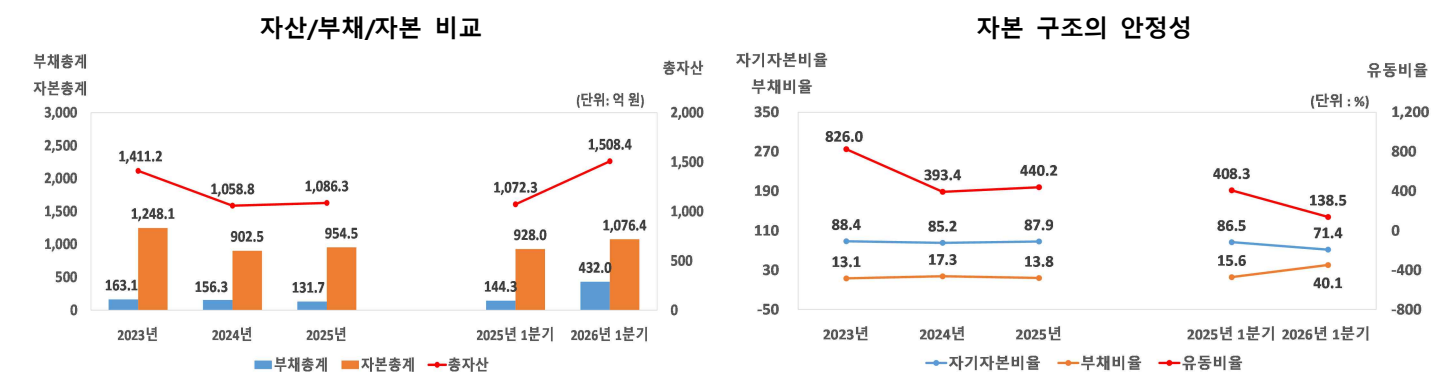
자본총계는 2023년 1,248.1억 원에서 2024년 902.5억 원으로 감소한 후 2025년 954.5억 원으로 회복하였다. 2024년 대규모 순손실의 영향으로 자본이 감소하였으나 2025년 순이익 흑자전환에 힘입어 자본 감소 흐름이 진정되었다. 다만 2025년 말 이익잉여금은 -211.8억 원으로 결손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누적손실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이익 축적이 필요하다.

2026년 상반기 주요 재무비율은 유동비율 138.5%, 부채비율 40.1%, 자기자본비율 71.4%를 기록하였다. 전환사채 발행 등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면서 2025년 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으나, 동시에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과 현금성자산 증가가 이루어졌다. 2026년 6월 말 자본총계는 1,076.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증가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도 258.5억 원으로 확대되어 유동성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의 완충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조달자금의 상당 부분이 공동기업 투자 등으로 운용되고 있고 전환사채가 증가한 만큼 향후

재무안정성은 투자자산의 성과와 전환사채의 전환·상환 여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업의 이익창출력이 유지되고 신규 투자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확대된 자본과 현금 보유액을 기반으로 중장기 재무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매출액	488.5	524.5	504.1	256.7	236.7
매출액증가율(%)	-45.3	7.4	-3.9	0.5	-7.8
영업이익	-28.4	19.5	48.1	14.9	-2.0
영업이익률(%)	-5.8	3.7	9.5	5.8	-0.8
순이익	-138.0	-310.6	52.5	26.1	6.8
순이익률(%)	-28.2	-59.2	10.4	10.1	2.9
부채총계	163.1	156.3	131.7	144.3	432.0
자본총계	1,248.1	902.5	954.5	928.0	1,076.4
총자산	1,411.2	1,058.8	1,086.3	1,072.3	1,508.4
유동비율(%)	826.0	393.4	440.2	408.3	138.5
부채비율(%)	13.1	17.3	13.8	15.6	40.1
자기자본비율(%)	88.4	85.2	87.9	86.5	71.4
영업현금흐름	-44.5	104.3	73.5	74.0	64.2
투자현금흐름	96.2	2.6	-35.9	23.8	-371.0
재무현금흐름	-129.1	-45.5	-14.6	-7.8	403.9
기말현금	77.0	139.3	161.0	226.3	258.5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2026년 연결 매출액은 약 505억 원으로 예상되어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외형상 전체 매출은 정체되는 모습이나, 세부적으로는 주력인 산업용 테이프 및 건축·차량용 필름 부문의 회복과 기타 부문의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비주력 사업의 기여보다는 본업 중심으로 매출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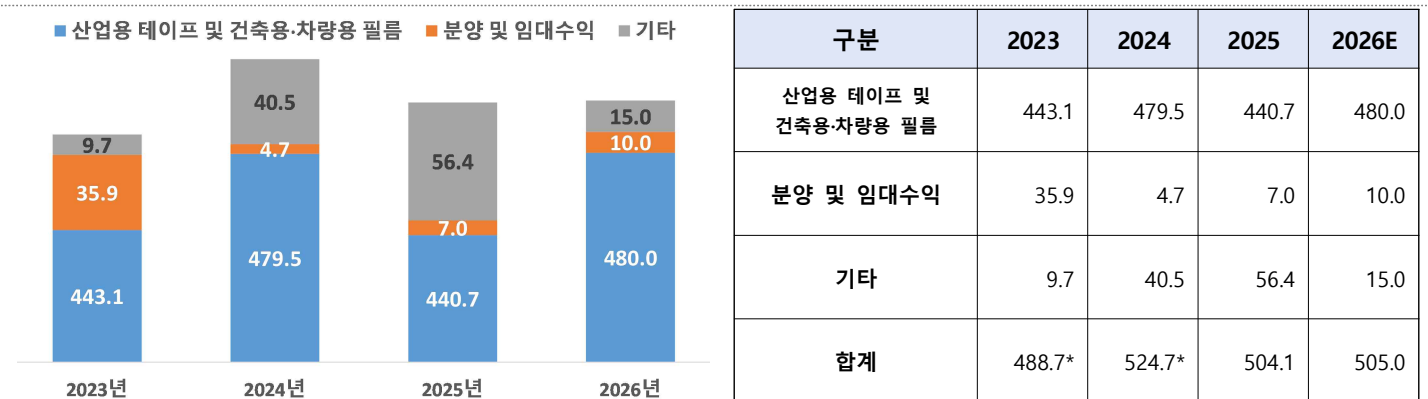
산업용 테이프 및 건축·차량용 필름 부문은 2023년 443.1억 원에서 2024년 479.5억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5년 440.7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480억 원으로 반등이 예상된다. 이 중 실적의 핵심은 모바일·전자기기용 고기능성 테이프, 기존 방수·내충격 제품에 더해 폴더블 기기용, 배터리 고정·해체용, 방열·차광 및 전기박리 제품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제품 믹스 고도화가 실적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마트폰 출하량 변화와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채택 여부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신규 기능성 테이프가 실제 양산 매출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성장의 핵심 요인이다. 건축·차량용 필름은 주력 테이프 사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열차단·표면보호 등 고기능 제품과 ZIVENT 브랜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요구된다.

분양 및 임대수익은 2023년 35.9억 원에서 2024년 4.7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2025년 7억 원, 2026년 10억 원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다만 과거 수준과 비교하면 규모가 제한적이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연결 실적의 방향성을 결정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수익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매출은 2023년 9.7억 원에서 2024년 40.5억 원, 2025년 56.4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26년에는 15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전체 매출 증가가 제한되는 것은 주력 사업의 부진보다는 기타 부문의 높은 기저가 정상화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2026년은 전체 매출 규모는 전년 수준에 머무르지만 산업용 테이프·필름 부문의 회복으로 본업 비중과 매출의 질이 개선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폴더블·프리미엄 전자기기용 고기능성 테이프의 고객 채택 확대와 자동차·배터리 등 신규 수요처 확보 여부가 추가 성장의 핵심 변수로 판단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사업보고서 내 매출실적표 기준 매출액(중단사업 포함)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고기능성 점착소재 고도화와 자동차·배터리 분야 확장을 추진 중

동사는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산업용 테이프의 적용영역을 폴더블·프리미엄 전자 기기와 자동차·배터리·ESS 분야로 확대하는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 폴더블용 고정·방수, 전기박리, 박막 방수, 난연·친환경 소재 등으로 기술 범위를 넓히고 있다. 주주환원은 최근 현금배당보다 자기주식 취득·보유 및 향후 소각 또는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활용 검토에 무게가 실려 있으며, 향후에는 신규 기능성 테이프의 실제 고객 채택과 자동차·에너지저장 분야의 거래선 확대, 보유 자기주식의 처리방향 및 자금조달에 따른 희석 가능성이 주요 관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2025년 주력사업의 기본 틀은 유지되었으나, 영업전략에서는 자동차용 보호필름의 양산 대응과 전기차 배터리·ESS 제조사 발굴이 구체화되면서 전자기기 중심의 고객 기반을 자동차·에너지저장 분야로 확장하려는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다. 이후 2026년에는 사업 명칭도 모바일기기용 양면테이프보다 범위가 넓은 ‘산업용 테이프’로 제시되고 있어, 스마트폰에서 확보한 점착기술을 다양한 전자기기와 자동차·배터리 분야로 확장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2025년에 연구개발 조직에 선행연구 기능이 별도로 추가되어 고객 신제품 대응과 중장기 기술개발을 병행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 기존 폴더블 기기용 방수·고정테이프, 배터리 탈착용 테이프 및 열방사 테이프에 더해 전압을 이용해 접착력을 낮추는 전기박리 점착기술과 TPE 기반 박막 방수기술 등이 연구개발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2026년에는 전기반응 테이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스마트폰 출하 보호테이프, ESS용 난연테이프 등이 신규 제품군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연구개발의 초점이 단순 방수·고정에서 수리 용이성, 친환경성 및 배터리 안전성까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현금배당보다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활용하는 방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동사는 과거 보유 자기주식을 실제 소각한 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장내에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 해당 자기주식은 2025년에도 계속 보유되었고,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각 또는 PSU(Performance Stock Unit,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도입을 통한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최근 결산연도에는 현금·주식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주주환원의 중심은 배당보다는 자기주식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26년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도 병행된 만큼, 향후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보유 자기주식의 실제 소각 여부와 신규 발행 증권의 잠재적 희석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향후 전망

동사의 단기 사업환경은 스마트폰 전체 수요 둔화와 프리미엄·폴더블 시장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로 판단된다. 2026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부품 공급 제약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출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폴더블 제품은 주요 스마트폰 영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용 모바일 부품의 물량 확대보다는 폴더블·프리미엄 제품에서 요구되는 방수, 충격흡수, 방열, 차광 및 탈착 기능을 복합화하는 방향이 동사에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사가 운영 중인 고객사 초기 공동개발 체계를 통해 신규 모델 설계 단계에서 제품 적용을 확보하고 이를 실제 양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이다.

중장기 성장축은 전자기기에서 자동차·배터리·ESS용 기능성 소재로의 적용처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사는 이미 자동차용 절연소재 공급과 배터리 관련 테이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보호필름, 배터리 고정·절연 테이프 및 ESS용 난연테이프로 제품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점착·절연·충격보호·난연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소재의 적용 기회도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와 ESS 분야는 장기간의 신뢰성 평가와 고객 인증이 요구되므로, 신규 제품의 개발 자체보다 실제 공급망 진입과 반복적인 양산 수주로 이어지는지가 사업 다변화의 성과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 기술 측면에서는 강한 점착력을 확보하는 기존 경쟁축에서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재작업성, 친환경성 및 안전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자극을 통해 점착력을 낮추는 전기박리 기술, 배터리 탈착을 쉽게 하는 해체성 테이프, 용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UV 경화형 점착기술 및 친환경 종이기재 보호테이프 등의 개발은 전자기기의 수리·재활용과 제조공정 친환경화 요구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 방수·내충격 제품에서 확보한 고객 기반을 활용해 이러한 차세대 제품이 신규 모델에 채택되는지가 기술 경쟁력의 사업화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동사는 기존 모바일기기용 양면테이프 중심의 사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폴더블·프리미엄 전자기기용 고기능성 소재의 고도화와 자동차·배터리·ESS 분야로의 고객 다변화를 병행하는 단계에 있다. 향후 사업의 질적 변화는 신규 기술의 수보다 글로벌 고객사의 실제 제품 채택과 양산 전환, 자동차·에너지저장 분야의 신규 거래선 정착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타법인 투자 목적의 자금조달이 병행되고 있는 만큼 본업과 신규 투자 간 시너지, 최대주주 측 지배구조의 안정성,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의 실행 여부도 기업가치 측면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앤디포스(23809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9.1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앤디포스	O	X	X

* 2026년 6월 25일 소수계좌 거래집중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